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내리 두 번 떨어지고 6년만에, 그것도 정치 1번지 종로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로사람들이 아니라 부산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예산, 삼성차, 녹산공단, 신항만, 낙동강, 그린벨트.....,

문제만 생기면 종로 국회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산국회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여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당이 싹쓸이하면 부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걱정이 됐지만 종로를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야망도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더 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야망도 품고 왔습니다.

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김해 진영의 작은 시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못나왔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쫓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말하다가 깃뺏힌 노동자들과 함께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인권변호사, 서민의 대변자'소리를 들었습니다.

98년 총로에서 당선된 지 10일만에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끈질기게 버틴 끝에 노동자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신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88년 국회 5공비리 청문회, 돈은 궁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씨에게 “회장님“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90년 3당합당, 따라가면 권세좋은 여당이 되고

다음 선거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정종신을 약속하고 당선된 정치인이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뺏지에 연연하여 변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 와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발산업육성 4,000억원 확보, 삼성차 재가중, 녹산공단 10퍼센트 할인분양, 그린벨트 지침 변경, 지사과학단지 확정, 낙동강 수질개선계획 확정,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위치 변경, 대사초등학교 신축, 명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버스노선(157-1) 연장, 동원역 앞 육교설치 확정,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면제...

앞으로도 남은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넉달동안 접수한 민원이 250여건이 될만큼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삼성차,

더이상 부품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매각문제, 끝장을 볼 때까지 매달릴 작정입니다.

강서 그린벨트,

한심한 '쓰레기벨트'였습니다.

내 땅에 방 한칸 들여도 '전과자'를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건교부와 싸워 지침 몇 개 고쳤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곡창으로 이름났던 김해평야,

낙동강물은 더럽고, 농로와 수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버려진 땅과 같 습니다.

서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녹산공단, 신항만공사로 어장을 다 빼앗기고 일터를 잃어 버린 어민들, 울분과 답답함을 소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삼성차 공장, 녹산공단이 제대로 가동되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한정어업면허라도 내주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덕도, 이름만 부산이지 낙도와 같은 섬,
날만 굶으면 뱃길이 끊겨 학교도 못 다니는 곳,
하루빨리 다리도 놓고 일주도로도 완공해야 합니다.

금곡·화명 지역 서민들,
몇 만원하는 관리비도 몇 달씩 밀린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일자리가 급했습니다.
속히 서민보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서민보호대책, 빨리 세우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모두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